광주 황룡강 주변 대규모 아파트 추진

평동산단 주변 139만㎡ 민자 투입 개발 사업자 공모

"난개발 사업 부추겨" vs "효율적 개발 걱정 안해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습지.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황룡강변 장록습지 주변을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체계적, 효율적 개발을 통해 오히려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고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 광주 광산구 지죽동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 139만5553㎡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의향서 제출 기한은 11월20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내년 1월29일까지다.

개발예정 부지는 준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돼 있어 아파트단지 등의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수용해 21개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공모지침의 골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부지가 9개로 면적으로는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단독주택부지 1개, 학교 5개, 지역전략산업시설 2개, 상업시설 3개, 유통용지 1개로 구성됐다. 한 단지에 1000~1500세대씩, 최소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프로젝트회사의 경우 설립자금을 50억 원으로 하고,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공사의 출자비율은 50.1%, 민간사업자는 49.9%로 했다.

전략산업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되 민간사업자에게 20년의 사용허가 기간 및 10년 기간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농업지역이던 이 일대는 산단 조성 당시 땅값이 싼 생산녹지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1998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지만 이후 폐기물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민원들이 대두됐다.

이번 공고를 두고 지역 사회에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향서 제출까지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 과거 언급조차 없던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임에도 공고 이외에 이렇다할 홍보마케팅이 없었다는 점, 출자 비율상 실패할 경우 광주시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고, 공고 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

시가 대규모 개발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친환경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전략산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임종기 도의원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 마련 촉구

상황별 대처 시스템 · 재해예방 예찰 시스템 마련 필요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동한 소방관이 각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과 재해예상 지역 예찰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이 존재한다"면서 "위급한 상황일 시 출동한 소방관이 1차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 화상통화, 구급차량 cctv 등 현장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보고로 인해 판단이 늦어져 구조 활동이 지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 의원은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재해예상구역을 지정해 예찰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지" 물으며, "예찰 기능을 활성화하여 재해발생 예상구역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가사다리와 같은 특수장비가 소방본부 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관련 재해 개연성이 높은 곳에 가까이 있어 상황발생 시 재해예방 및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종 기 의원은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사람 진입 이 불가능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물으며, "무인 로봇 등을 이용해 화재 등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김영록 지사 "경각심 갖고 방역 동참" 호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높여야 할 상황 올수 있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최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다"며 "도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를 통해 "지난 7일부터 10일간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과 화순 등에서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순천시에선 7일부터 총 20명이 확진됐다. 신한은행 지점에서 시작, 은행직원과 가족, 방문객으로 전파돼 9명이 양성 판정됐으며, 아구마을 식당과 워터피아 헬스장·사우나 등에서 11명이 추가됐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사우나·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영업제한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광양시의 경우 성광기업 근무 여성 확진자에 의해 동료, 가족이 감염됐으며, 이어 쇼핑센터 종사자, 식당·카페·미용실 등 n차 감염이 이뤄져 총 37명이 확진됐다.

화순군에선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가 최초 확진된 후 배우자, 자녀, 직장동료 등 4명이 확진, 지금까지 총 281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도 차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 발생지역에 '역학조사 공동협력 T/F팀' 운영과 함께 중앙 질병관리청 적극대응팀의 지원을 받아 감염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순천·광양·여수시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각종 평가서 "상복 터졌네!"

광주 동구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생산성지수 전국 1위 달성에 이어 다수의 수상 실적을 올리며 민선7기 행정역량을 안팎에 뽐내고 있다. 동구는 지난 9월 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가늠하는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생산성지수 1000점 만점에서 810.65점을 획득해 대상 수상 ▲'상생협의회를 통한 마을문제 해결 및 공동체 역량강화 사례'가 생산성 우수사례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생산성 측정과 우수사례 평가 모두 수상하는 '2관왕'을 달성하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가족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도시발전을 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서구,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광주 서구가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에이아이의 제안서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서구 쌍촌동 1287-1번지 상에 연면적 약 2000㎡ 규모의 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지역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밟아 추진해왔다.

올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제안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3개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호남대학교 조형근 교수(심사위원장) 외 심사위원 6인이 참석했으며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와 서구청의 사전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건축사사무소에이아이(건축사:봉환성)가 선정됐다.

서구는 당선된 건축사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남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점검

광주 남구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11월말까지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지난 16일 남구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와 공원, 버스 정류장, 학교, 도서관, 게임 제공업소 및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150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부서 공무원 2명과 금연 지도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북구, '희망아카데미' 온라인으로 운영

광주 북구는 다음달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북구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교양프로그램인 희망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희망아카데미는 다양한 주제의 명사 강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내일 방송인 안문현 씨가 강사로 나서 '파도치는 인생 바다를 행복하게 건너는 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12월 2일에는 인사이트컨설팅 양성길 대표의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흐름과 삶의 변화'에 이어 9일에는 박준영 변호사의 '세상을 바꾸는 용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산구, 지역에서 남북 교류협력 마중물 마련한다

광주 광산구가 지난 16일 구청에서 호남통일교육센터와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상호 교류 증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남북 교류협력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된 것.

협약으로 두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의 협업 및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북교류협력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남북교류행사 추진 공유 △통일교육, 포럼 등 다양한 콘텐츠 추진 협력에 나선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